

美 정보기관 수장 “오바마 대통령·CIA 국장 등 기소해야”

개버드 DN, “반역적 공모” 고발... 법무부에 증거 자료 제출 “미확인 ‘스틸 문건’ 기반, 2016년 트럼프 당선 무효화 시도”

미국 18개 정보기관 총괄자인 톨시 개버드(DNI)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존 브레넨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임스 클레퍼 전 DNI 등 전직 최고 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반역적 공모”의 혐의를 제기해 주목된다.

개버드 DNI가 18일(현지 시간) 이를 발표한 후 이날부터 이틀간 연방 법무부에 증거와 문건을 제출했다고 보도됐다. 법무부에 제출된 문건엔 오바마 행정부가 미확인 ‘스틸 문건’ 내용을 근거 삼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정보를 조작했으며, 이를 통해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쿠데타 시도”로 무효화하려 했다는 주장이 포함된다.

일련의 소식과 함께 개버드가 “(오바마 정부 시절) 최고위 공직자들의 반역적 행동을 철저히 수사·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터키 국영 통신 이외의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정도에 낫을 뿐이다. 나머지 세계적 주류 언론의 침묵이 눈길을 끈다.

미 법무부는 공식 수사 개시나 관련자들에 기소 절차 등 후속 조치를 내놓진 않았으나 관련 보도를 부인하진 않고 있다. 시칠리 1위의 폭스뉴스가 이 문제를 톱기사로 다룬 가운데 해당 사안을 ‘오바마게이트’로 불러 온 트럼프 진영에선 반응을 자제 중인 모습이다. 민주당 편향의 데일리 비스트 등이 개버드 발표를 “정치적 쇼” “실효성 없는 복수 정치”로 본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때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란 ‘스틸 문건’에 기반한 것이었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전직 영국 정보국(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이 작성했다 해서 일명 스틸문건인 ‘트럼프-러시아 파일’은 35쪽 분량의 메모 16건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 은밀한 공조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이다. 작성자 자신이 “미확인 원(原)정보”라고 명시했듯 조사를 위해 제작된 비공식·미확인 정보 모음집이었으나 이를 민주당의 오바마정부에서 기정 사실인양 몰아갔다. 트럼프 경선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장(DNI) 톨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이 1월30일 당시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지명자로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및 대선 승리가 ‘굴러온 돌의 이빨’으로 간주되던 시절이라 주류 공화당 내 동조자도 많았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2016년 11월18일 캐나다 헬리팩스 안보포럼에서 전 주영대사 앤드류 우드로부터 문건 존

재를 보고 받아 작성자의 전문성과 도구적 가치를 인정해 문건을 미국의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연방수사국(FBI)과 의회가 검토한 결과 “검증 안 된 루머·허위” “원 정보(raw intelligence)로서 가치 있음”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냈으나 당시 4대 정보기관 책임자들 즉 클레퍼 DNI, 제임스 코미 FBI국장, 브레넨 CIA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및 사이하 사령관이 2017년 1월 초 오바마 및 트럼프 당선인 측에 러시아 개입 문건 브리핑을 했다.

클레퍼가 2017년 1월 ‘문서 신뢰성’ 여부에 대한 확정 판단은 없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검증된 바 있다”고 인정했으며, 코미는 이듬해 4월 ABC 인터뷰에서 스틸을 “신뢰할 만한 출처”, 해당 문건을 “분석·검증 대상”으로 표현했다. 로버트 리트 전 DNI 법무팀장의 경우 그해 10월 일부 내용이 미 18개 정보공통체 평가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까지 말했다. 첫 임기의 트럼프는 시종일관 스틸문건 내용을 “가짜뉴스”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했으며 2020년 7월엔 스틸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선 스틸문건을 “허구” “조작” “가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쓰레기”로 일축했다.

푸틴 대통령은 “쓰레기”로 일축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기자나 CBS뉴스의 척 토드 역시 친트럼프 인사가 아니었음에도 스틸 문건의 신뢰성을 전면 부정했다.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의거한 FBI의 영장 신청에 결정적이었던 스틸문건의 성격과 한계를 법원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진영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철학적 정당성 위반 내지 사법 기만 혐의를 강하게 문제삼기도 했다.

한편 개버드의 트럼프2기 행정부 합류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2002년 만 21세 때 최연소(하와이)주 의원을 거쳐 2012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면서 내내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개버드는 2022년 10월11일 자신의 팟캐스트와 트위터(현 엑스) 등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 전정평가자 반(反)신앙적 엘리트주의자들의 정당이며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탈당 선언을 했다. 작년 트럼프 진영에 합류해 DNI라는 중책에 등용된 개버드의 이번 행보가 향후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부를지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임영신 기자 imms@skyedaily.com

美 ‘조용한 초음속’ 여객기 활주 시험... 뉴욕~런던 3시간반 운행

NASA·록히드마틴, X-59 개발... 소음 완화 관련 시속 1489km... 프리미엄 항공 시대 조만간 도래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록히드 마틴사(社)가 초음속 여객기의 부활을 목표로 함께 개발 중인 X-59이 시험비행을 앞두고 활주 테스트를 시작했다. 19일(현지 시간) NASA 발표에 따르면 초음속 항공기 X-59 개발팀은 10일 캘리포니아주 팰데일의 미 공군 제42 비행장에서 이 항공기의 첫 저속 활주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것이 X-59의 첫 시험비행 전 마지막 지상 테스트에 해당한다.

NASA는 X-59이 자체 동력에 의한 저속 활주 최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향후 몇 주간 활주 속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이륙 직전의 고속 활주까지 실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속 활주 테스트에서 엔지니어와 승무원들이 X-59 조향 및 제동 시스템 등 작동 상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다양한 조건에서 항공기 안전성과 제어 능력을 살피며 모든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의 확인 절차다.

앞서 NASA가 1월 제작 완료된 X-59를 선보이면서 금년 내 첫 시험 비행에 도전할 계획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험 비행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다.

NASA에선 그동안 록히드 마틴사와 함께 ‘조용한 초음속 기술’을 뜻하는 ‘퀘스트(QueSST) 미션’으로 명명된 X-59을 개발해 왔다. 소음을 대폭 줄이면서 음속보

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한 설계다. 음속의 1.4배 즉 시속 925마일(약 1489km) 수준이니 일반 여객기의 1.5배 이상 빠른 셈이다.

실제 비행에 성공하면 7시간10분 걸리는 미국 뉴욕~영국 런던 간을 약 3시간 반 만에 오갈 수 있다고 NASA가 쫓았다. 관건은 기존의 초음속 항공기보다 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다. 환경 문제에 보편적으로 민감한 시대이니 만큼 민항기로서의 시장성 여부도 우선 여기 달려 있다.

연비는 이미 과거 영국·프랑스가 공동 개발해 약 30년간 운행하다 퇴출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때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6년 취항해 2003년 중단된 초음속 여객기의 업그레이드 귀환 전망을 X-59이 높이고 있

다. 당시 콩코드는 대단한 기술력으로 각광받았으나 이착륙 시의 엄청난 굉음과 고액 요금 등이 결국 상업적 실패로 귀결됐다. X-59 성공은 초음속 여객기의 부활, 나아가 대중화 시대를 견인하며 또 하나의 눈부신 기술 진보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산업, 국제 경제, 외교, 안보, 환경 정책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작용하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X-59의 목표 달성이 조만간 친환경·저소음 프리미엄 항공을 열 수 있다. 미국 주도 아래 이뤄진 ‘더 조용하고 효율적인 초음속 여객기’의 탄생이란 기술 진보와 패권 유지라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재료과학, 엔진 기술, 항공역학, 소음 제어 등 다방면의 첨단 기술의 결합체인 X-59이 군용·우주 개발·친환경 항공기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것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항공기 제조업체 록히드 마틴에서 초음속 여객기의 부활을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항공기 X-59이 시험비행을 앞두고 활주 테스트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이다. 초음속 여객기 시대가 열리면 초고속 출장 및 글로벌 금융 중심지들 간 연결성 또한 크게 향상된다. 고위급 외교 사절단의 신속 이동, 재난·분쟁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는 미국·유럽 중심의 글로벌 지배력 회복을 가속화함으로써 비서구권의 도전을

따들리게 만들 수 있다. 초음속 항공 기술이 군수용으로 전용되는 것 역시 시간 문제다.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미국이 상징성과 실질 능력을 모두 갖춘 실물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패권질서 유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임영신 기자 imms@skyedaily.com

아스팔트에서 산화한 열사 김시립표 월약산 도라지즙

동의보감 감 東醫寶鑑

도라지 桔梗

도라지 엑기스

김시립 목사님 사모-남경우
농협계좌 356-1421-4451-03
입금후 문자☎010-2387-9937

60봉지 1상자
70,000원

사은행사 4상자
3+1
210,000원

4개 묶음배송
무료배송

파로배송시
각, 4천원씩
택배비 추가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 65세 완성)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아 임진왜란으로 구급을 언해본 편찬 중 선조의 사망에 대한 죄를 물어 귀양살이와 복귀함을 반복하며 1610년(광해군 2) 25권 완성 ▶ 동의보감 길경(桔梗)-청폐거담(淸肺祛痰 맑은 폐 가래제거), (熱邪 祛) 기축(氣促 호흡이 가쁜 것) 폐열(肺熱 폐질환) 면적(面赤-충열) 해수(咳嗽-가래) 비건(鼻乾-코 마름) 비늑(鼻-코피) 흉통(胸痛-가슴통증) 천축(喘促-기침하고 숨이가쁨) 객혈(咯血-기침에 피를 토함)